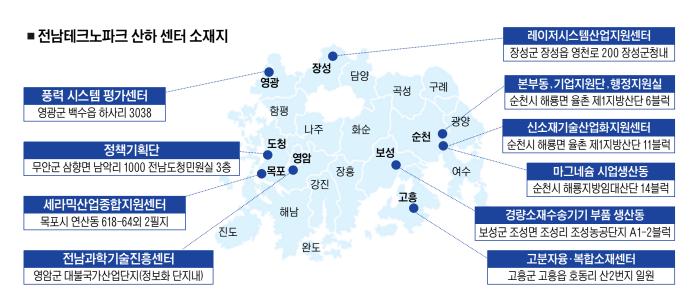
지방 공기업

전남 미래산업 발굴・육성 선도

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산실



✓ 전남테크노파크

지난 2003년 12월에 설립된 전남테크 노파크가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성장동 력산업 발굴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 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지역에 산재 해 있는 민·관·학·연의 역량을 결집시켜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(재) 전남테크노파크가 주춧돌이 되고 있는

◇지역 산업구조의 중추…신소재센터 등=율촌산단에 있는 본원 외에 순천, 보 성, 고흥에 마그네슘, 고분자 등 신소재 산업 육성을 맡은 신소재센터와 목포 대 양산단에 구조용 세라믹 산업을 지원하 는 세라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.

또 대불산단에 대학 및 연구·지원기 관 등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및 산업기 술화의 개발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 기술센터, 장성에는 반도체, 의료산업

신소재 등 산업기틀 마련 우수 산업계획…국비 확보

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레이저가공시 스템 산업을 지원하는 레이저센터, 영 광에는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등을 운영 하고 있다.

전남 동부권·서부권·중부권 산업구조 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.

신소재센터는 지난 2014년 (주)에이산 을 포함해 8개사 165억원의 투자를 유치 하고, 시제품 지원, 공정개선 지원 등을 통 해 도내 관련 기업들의 매출 313억원 향 상, 200명 고용 창출에 기여하기도 했다.

고분자센터는 전남・부산・제주와 공동 으로 전남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 (예비타당성사업)을 발굴하기도 했다.

◇지역산업진흥계획 3년 연속 우수=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2년간의 성과 인 5대 지역 특화산업을 종합해 전남도 와 공동으로 수립한 '2015년 전남도 지역

산업진흥계획'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 국 14개 시·도 대상 종합평가에서 3년 연 속 '우수등급'을 받아 국비 54억원을 추 가로 배정받았다.

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전남도는 올 한 해 동안 당초 계획 대비 국비 39억8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, 모두 243억16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. 이는 주력산업 (112억9300만원), 경제협력권 산업(115 억9200만원), 전통산업(14억3100만원)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투입할 예 정이다. 여기에 지방비를 더할 경우 지원 규모는 342억9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 이며, 이달 공모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.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전남도는 4대 주 력산업인 금속소재·가공산업, 바이오식 품산업,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산업, 에너지설비산업과 3대 경제협력권산업 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, 바이오활성소 재산업, 나노융합소재산업 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할 방침이다. /윤현석기자 chadol@

GCC 광주디자인센터

홍보·컨설팅 등 각종 지원 22일까지 신규입주 모집

광주디자인센터가 디자인 등 지식서 비스분야 1인 창조기업의 비즈니스 산실 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(재)광주디자인센터(원장 장상근)는 센 터 5층에 총 22석 규모의 사무공간과 회 의실, 자료실 등을 갖춘 '1인 창조기업 비 즈니스센터'를 운영하고 있다. 센터에 입 주한 (예비)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함께 디자인 및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,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, 우 수상품의 국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.

또, 전담 매니저와 코디네이터를 두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한편, 공동 마케팅 지원, 기업IR 등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를 돕는다.

디자인센터 '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 터'에는 현재 ㈜아뮬레토(대표 한경훈) 등 13개에 이르는 1인 창조기업이 입주 해 있다.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㈜토요 요(대표 정영민) 등 6개 졸업기업도 배출 했다. 이들은 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계 기로 창업했거나 사업화에 나선 사업화 초기의 창조기업으로, 디자인과 ICT·영 상 분야를 비롯해 조명·생활용품 등 사 업 분야도 다양하다.

아이디어 상품인 '티몽(차 인퓨저)'을 개발한 토요요는 G-마켓 등 국내 디자인 샵은 물론 미국 월마트, 중국 타오바오 등 해외 시장을 활발하게 공략하고 있다. 졸업기업인 엘피 스튜디오(대표 정원영) 도 디자인으로 무장한 사무용품 등을 앞 세워 국내 및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 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.

다기능 휴대전화 범퍼케이스를 출시 한 ㈜아뮬레토(대표 한경훈)는 각국 바



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전경.



광주 디자인센터 입인기업 상품들.

이어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모으면서 미국의 아마존, 중국의 알리바바, G-마 켓과 11번가 등 국내외 온라인 마켓에 입 점하는 등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.

치과 기공용품, 구강용품 업체인 창업 기업 ㈜덴솔프라임(대표 김광열)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미국, 일본 독일 등으로 진출해 30여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. 또, 리플(대표 김세례)도 한국보건산업진 흥회에서 주최한 바이오창업경진대회에 서 'hu=3soap'이라는 비눗방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유아용 천연비누로 '암웨이 웰리스상'을 수상했다.

이처럼 창조기업들이 사업화 초기에 도 불구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 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'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'의 체계적인 사업화

지원 프로그램과 글로벌 마케팅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.

비즈니스센터는 13개 입주기업을 비 롯해 7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 등 사업화 및 비즈니스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한다. 오는 22일까지 신규 입주자 10명도 모집한다.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분야 및 제조, 지식서비스분야에 이르기까지 유망한 예비창업자, 초기 창 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초기부터 성장 에 이르기까지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.

장상근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은 "1인 창조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 탕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 다"고 말했다.

/임동률기자exian@kwangju.co.kr

홍종희 원장 인터뷰



정 자립 기반을 확고 히 함과 동시에 5개 주력산업 인프라 구 축을 완료했습니다. 특화센터 운영이 본 격화됨에 따라 '지역

산업·기술의 창조적 육성기관'이란 비전 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. 전남기업들이 테크노파크를 통해 손쉽게 정부 지원을 받고, 이를 통해 기업 집적과 중점산업 육성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."

홍종희(61·사진) 전남테크노파크 원 장은 지난 2009년 8월 부임한 뒤 전남테 크노파크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시켰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. 그가 처음 발을 딛

"정부 연계사업 선도로 기업 지원 최선"

었을 때 실적은 미미했고, 테크노파크의 재정은 적자였으며, 기업을 유인할 수 있 는 정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었다.

홍 원장은 "부임할 때 주변에서 전남의 기업들이 중앙정부의 제도를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당시 테크노파크가 적자운영 상태 였는데 재정자립을 달성할 것을 부탁했 다"며 "중앙정부와 연계되는 새로운 사 업의 발굴이 필요했고 전남의 미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과 재정자립을 위한 민간경영 기법의 도입 이 절실했기 때문"이라고 말했다.

그는 이후 테크노파크 중장기 발전계 획을 직접 만들어 직원조회를 통해 설명 하고 경영전략을 확정한 후 중앙정부 제 도를 포함한 수탁성 사업 추진, 직원복지 제 시행, 출연금 사업 운영제 도입, 연구 수당제 운영, 노사협의회 신설, 직렬통합, 22개 시군 협력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정책 들을 시행했다. 그 결과 지난 2010년도부 터 매년 10억원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, 지 난 2013년도에는 15억원의 경상 흑자를 달성, 재정자립의 기반을 확고히 했다.

그는 전남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공 학박사로, 1977년 기술고시 합격 후 공업 진흥청에 들어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 원 국장,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을 거쳐 2009년 제3대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에 취임했다. /윤현석기자chadol@

